



캘리포니아 2025 수확 리포트 : 온화한 시즌이 만들어 낸 응축된 풍미와 선명한 산도

느리지만 꾸준했던 생장기가 뛰어남 2025 빈티지를 예고하다

새크라멘토 — 캘리포니아 와인용 포도의 수확은 큰 폭
없이 비교적 예측 가능한 흐름 속에서 길고 안정적인
생장기를 거쳐 11월 초에 마무리되었다.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걸쳐 서늘한 봄과 온화한 여름이 이어지며 포도
는 천천히, 고르게 성숙했다. 수확기까지도 온화한 기온
이 지속되며 2025 빈티지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감을 높
였다.

캘리포니아 와인 생산자들은 2025년 와인이 응축미와 균형감
을 동시에 갖출 것으로 전망한다. 레드 와인은 깊이와 구조감
을, 화이트 와인은 생동감과 정교함을 지닌 것으로 기대된다.
세인트 헬레나 알파 오메가 와이너리(Alpha Omega Winery)
의 와인메이커 멜리사 패리스(Melissa Paris)는 "2025년 와인
은 풍성함보다는 우아함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며 "절제미와
포도밭 고유의 개성이 강조되는 빈티지"라고 평가했다.

“2025년 와인은 풍성함보다는 우아함에 무게가 실릴 것이다. 절제미와 포도밭 고유의 개성이 강조되는 빈티지다.”

—세인트 헬레나 알파 오메가 와이너리의 와인메이커
멜리사 패리스(Melissa Paris)

서늘한 시즌 초반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수확이 평균보다 최대 2주까지 늦게 시작됐다. 수확 후반의 강우로 인해 포도밭 팀들은 기민하게 대응해야 했으며, 곰팡이 없는 깨끗한 과실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철저한 선별 작업이 요구됐다.

수확량은 지역에 따라 평균에서 평균 이하 수준으로 보고된다.

미 농무부(USDA)는 2025년 캘리포니아 와인용 포도의 생산량을 300만 톤으로 전망했다. 이는 2024년 대비 4% 증가한 수치이나 최근 3년 평균보다는 16% 낮은 수준이다. 캘리포니아와인포도재배자협회(CAWG)는 2025년 생산량을 약 250만 톤 미만으로 추산하는데, 이는 2024년 288만 톤보다 감소한 수치다.

서늘한 날씨가 이끈 느린 숙성

캘리포니아의 다양한 와인 산지 전반에 걸쳐 2025년은 평년보다 서늘한 해로 기록됐다.

나파 밸리의 멜리사 패리스는 “이번 시즌은 속도와 분위기 모두에서 더 클래식하게 느껴졌다. 극적이기보다는 차분했고, 와인메이커라면 누구나 꿈꾸는 느린 숙성이 인상적이었다”라고 말했다.

센트럴 밸리 역시 온화한 생장기 덕분에 초기부터 빈티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클락스버그의 보글 패밀리 와인 컬렉션(Bogle Family Wine Collection)에서 포도 재배 총괄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는 “초기 품종부터 색과 풍미의 발현이 뛰어나고, 시즌 초반부터 품질이 매우 높았다”고 전했다.

수확 시작 시점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노스 코스트 소노마 카운티의 램스 게이트 와이너리(Ram's Gate Winery)의 경우, 카르네로스 지역의 포도는 8월 25일부터 수확을 시작했으나, 해안에 가까운 포도밭의 성숙은 훨씬 더디게 진행됐다.

양조 책임자 조 닐슨(Joe Nielsen)은 “해양 영향이 강한 지역과 무르베드르, 시라, 카베르네 소비뇽 등 만생종은 충분한 시간을 필요로 했고, 최적의 성숙도에 도달한 시점은 10월 이후였다”고 설명했다.

파소 로블스를 포함한 센트럴 코스트 및 내륙 지역의 기후 역시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서늘한 봄 이후 7월은 관측 이래 가장 온화한 달로 기록됐으며, 수확은 평균보다 7~10일 늦게 시작됐다.

호프 패밀리 와인(Hope Family Wines)의 포도밭 총괄 스테이시 시이(Stasi Seay)는 “올해 100°F(약 38°C)를 넘는 날이 8일이나 있었는지조차 의문”이라며 “전혀 일반적이지 않은 해였다”고 말했다.

수확 시 낮은 브릭스 수치는 레드 품종에서 뛰어난 풍미 발달과 선명한 색감을 이끌어냈다.



“2025 빈티지는 우아하면서도 풍미가 풍부한 와인이 될 것이라 전망한다.”

—세바스토폴 프리먼 와이너리의 와인메이커이자 공동 설립자 아키코 프리먼 (Akiko Freeman)

유연성을 요구한 수확기 강우

수확기 비는 늘 변수를 더하지만, 9~10월 강우에도 캘리포니아의 재배자와 양조가들은 빠르게 대응했다.

러시안 리버 밸리와 웨스트 소노마 코스트에 포도밭을 보유한 프리먼 와이너리(Freeman Winery)는 일부 과실을 조기에 수확한 뒤 덜 익은 포도를 선별하여 제거하는 전략을 택했다. 와인메이커이자 공동 설립자인 아키코 프리먼(Akiko Freeman)은 “피노 누아는 낮은 브릭스에도 불구하고 풍미가 뛰어났고, 샤르도네 절반은 큰 비 이후에 수확했지만 재배자들이 문제 있는 송이를 모두 제거해 매우 훌륭한 포도를 얻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램스 게이트와 같은 일부 와이너리는 공기 순환을 개선하고 곰팡이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해 포도 재배 구역을 개방했다.

패리스는 “나파 밸리의 비는 특히 배수가 좋은 포도밭에서 카베르네 소비뇽의 풍미에 입체감을 더하고 응축도를 높였다”며 “올해는 품질보다는 타이밍과 팀워크가 더 큰 시험대였고, 인내만큼이나 민첩함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준 해였다”고 말했다.

신선하고 생동감 있는 빈티지

서늘한 기후 덕분에 여러 지역에서 포도는 낮은 당도에서 완숙에 도달했다. 그 결과 2025년 와인은 생동감과 복합미를 동시에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프리먼은 “2025 빈티지는 우아하면서도 풍미가 풍부한 와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닐슨은 특히 샤르도네, 피노 블랑, 소비뇽 블랑에서 뛰어난 산도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레드 와인은 긴 숙성 기간 덕분에 입안에서 텐션과 에너지를 보여주고, 늦게 수확한 품종일



수록 깊은 색감과 응축미, 섬세함이 돋보인다.

나파 밸리의 카베르네 소비뇽과 카베르네 프랑은 깊은 색감과 고운 질감, 우아한 타닌 구조를 갖췄다. 소비뇽 블랑은 밝은 시트러스와 핵과류 풍미를, 샤르도네는 텐션과 미네랄리티를 보여준다.

센트럴 코스트에서도 화이트 품종의 에너지와 레드 품종의 뛰어난 색감과 풍미 강도가 보고되고 있다.

일부 와인메이커들이 강우 영향을 피하기 위해 샤르도네를 평소보다 낮은 당도에서 수확하면서, 2025 빈티지는 한층 더 밝고 생동감 있는 스타일의 와인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J. 로어 빈야즈 & 와인즈(J. Lohr Vineyards & Wines)의 양조 부사장이자 몬터레이 카운티와 아로요 세코에 에스테이트 포도밭을 운영하고 있는 스티브 펙(Steve Peck)은 “보다 신선한 스타일의 와인이 일부 등장할 것”이라며 “알코올 도수가 14.5%에 가까운 수준이 아니라 13.5%를 약간 웃도는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적인 와인 스타일과 잘 맞는다”고 설명했다.

그가 특히 인상 깊다고 꼽은 것은 파소 로블스 레드 와인의 완성도다. 펙은 “우리의 20달러대 카베르네 소비뇽이 50달러대 와인에 사용돼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다”며 “올해 파소 로블스에서는 정말 이상적인 균형을 이뤄냈다”고 덧붙였다.

지역별 수확 리포트

로다이(LODI)

와인용 포도 재배 에이커: 82,000

가장 많이 식재된 포도 품종:

카베르네 소비뇽, 샤르도네
진판델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품종:

소비뇽 블랑

수확 개요

평균 기온:

평년보다 서늘

강수량: 평균

산불 피해 면적: 없음

수확 시작 시기:

평년 수준

수확 시작일:

8월 11일 주간

수확량: 평균~평균 이하

2025 빈티지는 신선한 산도와 생동감 있는 풍미가 두드러지는 뛰어난 품질을 보이고 있다.

발아부터 개화까지 병해 위험이 적고 생육이 안정적으로 진행됐으며, 온화하고 서늘한 기온 덕분에 포도는 천천히 성숙했다.

재배자들은 총산과 pH의 균형이 맞춰질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했다.

피노 그리지오와 소비뇽 블랑 같은 화이트 조생종은 산도가 잘 유지됐고, 레드 품종은 낮은 당도에서도 짙은 색감과 신선함, 깊은 풍미를 발달시켰다.

진판델은 특히 뛰어난 색감과 응축도를 보여주고 있으나, 오래된 포도나무의 경우 수확량은 다소 적은 편이다.

나파 밸리(NAPA VALLEY)

와인용 포도 재배 에이커: 43,524

가장 많이 식재된 포도 품종:

르네 소비뇽, 샤르도네, 메를로

수확 개요

평균 기온:

평균보다 서늘

강수량: 평균

산불 피해 면적:

5,001-8,000

수확 시작 시기:

평년 수준

수확 시작일: 8월 11일

수확량: 평균 이상

2025년 나파 밸리는 예상보다 높은 수확량과 함께 뛰어난 품질을 기록했다. 와인메이커들은 우아함과 균형, 숙성 잠재력을 갖춘 ‘클래식한 스타일’의 회귀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 몇 년과 달리 전반적으로 서늘한 기후, 봄과 초여름의 강우, 그리고 극심한 폭염이 없었던 점이 특징이다.

겨울 강우는 건강한 캐노피 형성과 작과에 긍정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발아는 3월 10일경 시작됐고, 6월은 온화했으며 베레종은 7월 중순에 나타났다.

완만한 기후와 안정적인 성숙 속도는 포도밭별 개성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냈다. 8월 칼리스토가 힐스에서 산불이 발생했지만, 북부 일부 지역에 국한됐으며 농경지 피해는 약 3%에 그쳤다.

9~10월 강우 시기에는 밸리 남부의 바람이 포도를 빠르게 말려주었고, 곰팡이 방지를 위해 캐노피를 열고 송이를 느슨하게 관리했다.

그 결과 포도는 낮은 브릭스에서도 뛰어난 색감과 페놀 성숙도를 보이며, 과도한 힘 없이도 깊이감을 갖췄다.

파소 로블스(PASO ROBLES)

와인용 포도 재배 에이커: 40,000

가장 많이 식재된 포도 품종:

카베르네 소비뇽, 시라, 프티 시라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품종:

기타 론 품종

수확 개요

평균 기온: 평년 수준

강수량: 평년 이하

산불 피해 면적: 없음

수확 시작 시기:

평년보다 늦음

수확 시작일: 8월 하순

수확량: 평균

2025 빈티지는 파소 로블스 전반에 걸쳐 매우 높은 품질을 보여주고 있다.

화이트 품종은 완숙하면서도 깨끗한 상태로 수확됐고, 카베르네 소비뇽은 긴 숙성 기간 덕분에 색감과 구조, 풍미가 한층 강화됐다.

레드 와인은 복합미와 균형이 뛰어나며, 특히 시라의 완성도가 돋보인다. 많은 생산자들이 2025년을 2023 빈티지와 비교하고 있다.

2025년 파소 로블스의 생장기는 전반적으로 온화한 날씨와 함께, 기록상 가장 서늘한 여름 중 하나로 특징 지어진다. 발아는 평년보다 10일에서 2주가량 늦어졌으며, 온화한 봄 날씨가 포도의 느린 성숙을 이끌었다. 개화와 착과 상태는 거의 완벽에 가까웠고, 수확량은 평균에서 약간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

시즌 내내 비교적 높은 수준의 노균병 압박이 유지된 한편, 포도나무가 고온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았다. 폭염이 없었던 덕분에 포도나무는 생장기 전반에 걸쳐 양분을 원활히 흡수할 수 있었고, 수확 이후 휴면기에 접어들 때까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수확은 평년보다 약 일주일 늦게 시작됐으며, 결과적으로 평균에서 평균 이상 수준의 수확량을 기록했다. 일부 포도밭에서는 평균 대비 10~20% 높은 수확량을 보이기도 했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며 베리 크기가 충분히 형성됐고, 수확 기간 중 세 차례의 강우는 포도알의 중량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샌디에이고 카운티 (SAN DIEGO COUNTY)

와인용 포도 재배 에이커: 641

가장 많이 식재된 포도 품종:
카베르네 소비뇽, 시라, 메를로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품종:
알바리뇨, 카베르네 프랑

수확 개요

평균 기온:
평년보다 서늘함

강수량: 평년 이하

산불 피해 면적: 없음

수확 시작 시기:
평년 수준

수확 시작일: 8월 8일

수확량: 평균 이상



서늘한 시즌과 안정적인 개화 조건 덕분에 2025년 샌디에이고 카운티는 전반적으로 뛰어난 품질이 기대된다. 일부 재배자들은 특히 템프라니요의 성과가 매우 우수했다고 평가했다.

산타 바바라 (SANTA BARBARA)

와인용 포도 재배 에이커: 14,886

가장 많이 식재된 포도 품종:

피노 누아, 샤르도네, 시라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품종:

소비뇽 블랑 및 얼터너티브
화이트 품종

수확 개요

평균 기온:
평년보다 서늘함

강수량: 평년 이하

산불 피해 면적:
약 3,000에이커

수확 시작 시기: 평년 수준

수확 시작일: 8월 20일

수확량: 평균

2025 빈티지는 낮은 알코올 도수와 높은 자연 산도로 정의될 전망이다. 풍미와 페놀 성숙은 평년보다 낮은 당도에서 달 성됐으며, 특히 피노 누아는 낮은 브릭스 수치에서도 매우 뛰어난 품질을 보여주었다.

2025년 생장기 동안의 기상 조건은 평년보다 서늘했고 극도로 건조했다. 착과는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고르게 이뤄졌다. 이러한 건조한 환경은 8월 발생한 기포드(Gifford) 산불의 배경이 되었는데, 이 산불은 산타 마리아 인근 로스 파드레스 국유림 내 험준한 가르시아 자연보호구역에서 13만 에이커 이상을 태웠다. 잔존 연기는 산타 바바라 카운티 내 약 3,000에이커의 포도밭과 함께, 샌 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 일부 포도밭에도 영향을 미쳤다.

수확은 예년과 비슷하게 8월 셋째 주경 시작됐으나, 서늘한 여름과 가을 기온으로 성숙이 지연되면서 전체 물량의 대부분은 시즌 후반에 수확됐다. 수확기 중 발생한 강우는 후기 성숙에 도전 요인으로 작용하며 생장 기간을 10월 말까지 연장시켰다. 2025년 수확량은 양이 적었던 2024년 빈티지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타 클라라 카운티 (SANTA CLARA COUNTY)

와인용 포도 재배 에이커: 1,471

가장 많이 식재된 포도 품종:
카베르네 소비뇽, 말벡, 메를로

수확 개요

평균 기온: 평년 수준

강수량: 평년 수준

산불 피해 면적: 없음

수확 시작 시기:
평년보다 늦음

수확 시작일: 9월 13일

수확량: 평균

2025 빈티지는 서늘한 기후의 특징이 반영된 와인으로, 레드 와인에서는 푸른 과실의 풍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생장기 동안 기온은 낮거나 온화한 수준을 유지하며 개화와 발아 시기가 다소 지연됐다. 여름철의 서늘한 날씨로 인해 수확은 평년보다 최소 일주일 이상 늦게 시작됐다.

소노마 카운티 (SONOMA COUNTY)

와인용 포도 재배 에이커: 56,894

가장 많이 식재된 포도 품종:

샤르도네, 피노 누아, 카베르네 소비뇽

수확 개요

평균 기온:

평년보다 서늘함

강수량: 평년 이상

산불 피해 면적: 없음

수확 시작 시기: 평년 수준

수확 시작일:

8월 12일

Yields: 평균

소노마 카운티의 와인메이커들은 2025 빈티지에서 예외적으로 뛰어난 과일 품질을 확인했으며,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와인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강수와 온화한 기온이 이어진 겨울 이후, 서리 경보가 거의 없었던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해 시즌은 10월 중순까지 거의 이상적인 조건 속에서 전개됐다.

따뜻하면서도 균형 잡힌 여름 날씨의 포도의 균일한 성숙을 이끌었고, 간헐적인 서늘한 밤 기온은 과실의 산도와 구조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수확은 스파클링 와인용 포도가 준비된 상태에서 8월 중순, 예정된 일정에 맞춰 시작됐다. 재배자들은 포도밭 전반에 걸쳐 성숙이 고르게 이뤄졌고 풍미 발현 또한 매우 뛰어났다고 전했다. 수확량은 전반적으로 건강한 수준을 보였으며, 봄철 착과 조건이 좋았던 덕분에 일부 포도밭과 품종에서는 전년보다 약간 많은 수확량을 기록하기도 했다. 10월 첫째 주에 접어들며 강우 예보가 나오자 수확 속도는 눈에 띄게 빨라졌다.

카운티 전역에서 재배자와 와인메이커들은 비와 기온 하강이 본격화되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며 수확 작업을 진행했다.

수이선 밸리(SUISUN VALLEY)

와인용 포도 재배 에이커: 3,000

가장 많이 식재된 포도 품종:

카베르네 소비뇽, 뽀띠 시라

샤르도네

수확 개요

평균 기온:

평년보다 서늘함

강수량: 평년 수준

산불 피해 면적: 없음

수확 시작 시기:

평년 수준

수확 시작일: 8월 하순

수확량: 평균

수이선 밸리의 와인메이커들은 수확 시 일부 품종에서 건포도화(shrivel)와 낮은 pH라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 빈티지의 전반적인 품질은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생장기 일정은 평균보다 다소 늦게 진행됐으나, 그 외에는 큰 이변 없이 안정적이고 평온한 흐름을 보였다.

테메쿨라(TEMECULA)

와인용 포도 재배 에이커: 2,500

가장 많이 식재된 포도 품종: 카베

르네 소비뇽, 시라, 뽀띠 시라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품종:

베르멘티노, 시라

수확 개요

평균 기온:

평년보다 서늘함

강수량: 평년 이하

산불 피해 면적:

없음

수확 시작 시기:

평년보다 늦음

수확 시작일: 8월 22일

수확량: 평균 이하

테메쿨라 지역의 와인메이커들은 조생 및 중생종에서 뛰어난 산도와 품종 고유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전반적으로 높은 품질의 빈티지를 기대하고 있다. 2025년 생장기는 기상 조건과 발아·개화 시기 면에서 다소 변동성이 있었으며, 전반적인 흐름은 평년과 차이를 보였다. 서늘한 날씨의 영향으로 수확은 예년보다 1~2주 늦게 시작됐고, 포도나무에 열린 과실량이 적어 2025 빈티지의 전체 수확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WINE INSTITUTE

www.wineinstitute.org

추가 정보 필요시 연락처

communications@wineinstitute.org

WINE INSTITUTE 소개

와인 인스티튜트(Wine Institute)는 1934년에 설립된 단체로, 캘리포니아 주 내 1,000개 이상의 와이너리 및 관련 사업체를 대표하는 공공 정책 옹호 기관입니다. 본 기관은 와인의 책임 있는 생산 · 소비 · 향유 환경 조성을 목표로 주정부, 연방정부 및 국제 차원의 공공 정책을 발의하고 옹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